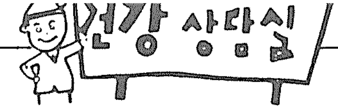

문 : 암에 대한 조기진단의 중요성은 어떤 것인가요?

답 : 각종 암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인 진단을 받음으로서 치유율(또는 완치율)을 높힐 수 있으며 발견이 늦어지고 증상이 나타날 수록 암세포의 전이현상이 심해 발암소에서 다른 부위로 악성(암)세포의 이동이 많아지고 비례하여 정상세포의 파괴도 많아진다고 볼 수 있읍니다.

때문에 무증상 시의 조기발견이 강조되고 있읍니다.

약을 먹어도 쳇증이 낫지 않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 대하가 많아지고 피가 섞여 나오며 접촉 전후에 출혈이 있는 여성, 변 보는 습관이 달라지고 피 또는 곱이 나오는 사람, 소변이 잘 안나오고 피가 섞여 나오는 사람, 젖 또는 피부속에 통증이 없는 멍울이 생긴사람, 저절로 목소리가 쉬거나 마른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사람, 상처가 낫지 않고 단단해지거나 사마귀와 뽀루지가 갑자기 커지거나 건드리면 출혈이 있고 이상해지는 사람은 암의 경고를 나타내는 사례의 사람이므로, 꼭 암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암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바로 진단을 받도록 권고하고 싶읍니다. 암은 조기발견만이 100%의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음도 첨언합니다.

문 : 폐암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답 :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하여 선진화된 국가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읍니다.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많고 증가율도 남성이 높게 여겨집니다.

폐암의 원인으로는 담배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하루의 흡연량이 많아 질수록 폐암에 의한 사망율도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또한 유전이나 체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배기가스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조기에는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며, 기침, 가래, 흉통, 호흡곤란, 체중감소, 혈담 등 증상을 느낄 때는 치료시기가 많이 지난 경우가 보통입니다.

폐암은 특히 전이가 빠른 편이며 폐문암은 임파절이나 굵은 혈관으로 확대 전이되고 폐야암은 흉막이나 흉곽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폐암은 조기발견에 의한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므로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친척중에 암환자가 있는 사람은 자진하여 미리미리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겠읍니다.

〈조사연구부 자료제공〉